

근대 사적 공간과 문학의 내면 공간*

이 재 봉**

차 례

- | | |
|---------------------------|-------------------------|
| I. 사적 영역, 공적 영역 | III. 하숙방이라는 문학 공간, 근대문학 |
| II. 기숙사·하숙방의 등장과 사적
공간 | 의 공간 분할 |
| | IV. 마무리 |

국문초록

근대문학은 사적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서구의 경우 19세기 부르주아 계층의 발달로 가족, 부부관계, 어린이 등의 개념과 함께 주거공간이 분화·재배치되면서 사적 공간이 등장했지만 부르주아 계층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근대 초기 조선은 사정이 달랐다. 근대 초기 조선에서는 ‘근대’, ‘문명’ 등과 ‘학교’라는 제도적 변화가 생활조건을 변화시켰고 근대문학에서 중요한 사적 공간도 이와 관련하여 등장하게 된다. 기숙사, 특히 하숙방이 그것이다. 기숙사의 경우 때때로 사적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규칙과 규율로 통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반면 기숙사는 일정한 계약 조건 아래 획득되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적 공간의 특성을 상당히 지니면서 근대문학에 간여하게 된다. 하숙방은 집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의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유학생의 개성을 나타내는 독립적 공간이었다. 하숙방에서는 고독한 유학생의 내면이 탐색되고 지적·정서적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내밀성이 교환된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투르게네프, 고리키 등의 시선 아래 하숙방에서 근대의 문학 작품을 읽고 일기나 편지, 소설 등을 쓰고 있었다. 따라서 하숙방은 당시 유학생들의 내면과 문학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공간이었으며 이와 같은 공간을 소유했던 유학생들은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숙방과 같은 공간을 분할해 내지 못한 고향은 더 이상 낮익고 친숙한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공간이고 돌아가기 힘든 곳으로 변해버렸다. 태어나고, 가족이 있는 공간이 모두의 시선 아래 노출된 공간이며 따라서 정서적으로 이미 절연된 공간으로 변해버린 까닭이다.

주제어 : 근대문학, 사적 공간, 기숙사, 하숙방, 유학생, 내면, 내밀성, 고향, 공간분할

I.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서재필 또는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 그가 1898년 중추원 고문관에서 해임되어 미국으로 출국하려 할 때, 독립협회 회원들은 그의 출국을 만류하고 나선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필립 제이슨을 해고하여 국고를 낭비했다¹⁾며 정부에 이유를 따져 묻는 한편, 서재필에

1) 독립협회 회원들은, 1898년 4월 25일 독립협회 토론회 총대위원 신용진, 남궁억 두 사람을 대표로 하여 정부에 편지한다. 편지에서는 “중추원 고문관 서지필씨를 연청훈 지 우금 네 해가 되도록 훈 번도 시험하여 쓰지 아니하고 현금에 드른 즉 학교야 돌려 보낸다 호오니 이는 국지만 허비하고 실효를 얻지 못하였스니 당초에 고문관을 둔 본의도 아니요 또 인민을 지명 식이는 더 관계도 적지 안키로 이에 양조호오니 조량호옵서 회원들 다시 청호사 스무에 실적을 주케 호심을 바란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중추원 고문관의 회고훈 스건은 연청훈 후에 시용치 못하고 국지만 허비하였다 호오니 회원 장정을 아즉 실시치 못호고로 회원에서 시용은 못호였스되 서씨가 청빈훈 지 몇 히 동안에 인민을 디호여

게도 공개적인 서한을 보내 출국을 만류한다. 독립협회 회원들이 서재필에게 보낸 서한과 서재필의 답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드른 즉 각하(서재필-인용자)가 장차 호연히 횡장을 다스린다 하니 그 크게 올치 아니흔 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대개 각하가 외국에 호적흔 것은 진실노 다만 부득이흐야 혼 것이니 간절히 각하를 위하야 인식하고 또흔 각하의 조종분묘가 우리나라에 있고 각하에 종족 친척이 우리나라에 있고 각하의 아우가 또흔 분우의 직립을 못하스니 각하가 엇지 참아 여기를 버리고 가라 혼노²⁾(강조, 인용자)

귀 정부에서 나를 림용하시기 슬혀 나를 히고하시고 회환비스지 주신 후에 내가 사담업시 귀국에 두류하논 것은 다만 내 모양에만 슈통홀 뿐 아니라 미국 총더흔 공스도 또흔 내가 염치를 불고하고 잇는 것을 못당히 녀이지 안이 홀 터인즉 체면과 사세에 불가불 갈 맞기 슈가 업습고 내 조종의 분묘와 종족과 친척을 썬나가는 것은 내의 사스 일이라 타인의게 관계업는 일이요³⁾(강조, 인용자)

독립협회 회원들은 서재필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인이 된 것은 갑오경장 이후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라 양해하지만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무

혹 연설도 하며 신문으로 론설도 해야 금일 귀회에서 국지 허비함을 인식히 녀임과 인민 기명함으로 목적함이 또흔 셔씨의 효력이 업지 안은 즉 엇지 국지만 허비라 칭하며 현금에 셔씨를 다시 연청하야 당초에 덩약흔 기한을 치우고져 하나 히고흔 후에는 그 가고 머무는 것이 셔씨 즈유에 잇는지라(하략)” 『미일신문』, 1898. 5. 2. 표기에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독립신문』, 1898. 5. 3.에서도 같은 내용의 두 편지를 게재하여 두고 있다.(맞춤법은 그대로 두고 띄어쓰기는 오늘에 맞게 고쳤음. 이하 마찬가지다)

- 2) 『독립신문』, 1898. 5. 5. 이 편지들은 『미일신문』, 1898. 5. 3. 및 5. 4.에도 게재되어 있다. 이 외에 서재필이 증추원 고문에서 해임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신문』, 1898. 5. 3, 10, 19 등과 『미일신문』, 1898. 5. 2, 3, 4, 5, 11, 13 등의 논설과 잡보에 나타나 있다.
- 3) 『독립신문』, 1898. 5. 5.

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에게 서재필은 독립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당시의 정국(政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다고 그만큼 그가 지닌 상징성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의 분묘와 친척 및 아우의 일 등을 들어 미국행을 만류하고 나선다. 이는 물론 서재필의 미국행을 만류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이유까지 들어 미국행을 만류하는 것은 독립협회 회원들에게는 서재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재필은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재필은 독립협회 회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정부의 논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조상의 분묘와 친척 및 아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침내 서재필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경매처분하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고 만다.

여기에서 독립협회 회원들과 서재필 사이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상의 분묘와 친척, 그리고 아우(가족)라는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가 독립협회 회원들과 서재필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독립협회 회원들이 조상의 분묘와 친척 및 아우(가족)를 들어 미국행을 만류한 것은 이와 같은 가치가 공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조상의 분묘가 있고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는 공간은 전통적인 의미의 ‘고향’이다. 따라서 이를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유교적 가치 아래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위였다. 실제로 동양에서는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하는 귀양이라는 제도가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⁴⁾이었다는 사실은 이들 가치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4) 김태준,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15쪽 각주 2) 참조. 이런 사정은 서양에서도 비슷했다. 이언 와트는 ‘인간이 자기 혼자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 수 없거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짐승이거나 신 둘 중 하나’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전의 전통에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징벌’의

이미 필립 제이슨이 되어버린 서재필에게 이 문제는 지극히 사적(私的)인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문제가 ‘타인에게 관계없는’ ‘샤스 일’이라며 한 마디로 일축해 버린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는 ‘사적’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기존의 사회에서 공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사적인 것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개념이 등장하여 공/사의 영역을 가르기도 한다. 개인의 개념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내면성·내밀성, 프라이버시 등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근대의 문학예술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근대의 문학과 예술에서 개성이 중시되는 현상은 작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했던 문학사적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사적’인 것의 부각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전 시기의 문학이나 예술과 달리 근대에는 문학예술에도 ‘사적’ 영역의 여러 요소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문학에서 내면이 강조되고 고백이 중요한 특징으로 등장하는 것 또한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근대문학에서 사적 공간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근대의 주거공간은 사생활의 욕망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되고 배치된다.⁵⁾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인과 유대인들에게 사회집단으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은 개인적 파멸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돈키호테, 돈 후안, 파우스트, 로빈슨 크루소는 모두 자유의사로 인한 방랑자들이며 이런 점에서 이들은 근대 개인의 중요한 인물들이다. I. Watt, 이시연·강유나 옮김, 『근대 개인주의의 신화』, 문학동네, 2006. 181~182쪽.

- 5) 물론 근대의 공장 역시 자신의 공간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애초에 공장은 다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점차 그 기능을 ‘근대’의 상황에 맞게 기능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물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사생활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사적인 주거공간을 분화시킬 수 없었다. 하층민이나 노동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화될 공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생활과 연관된 공간의 사적 분화는 부르주아의 계층의 특권적인 것이기도 했다.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책임편집, 김기림 역, 『사생

이런 현상은 물론 특히 19세기 부르주아계층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간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분화된다기보다 새로운 생활방식의 형성을 통해 이전과는 이질적인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이다.⁶⁾ 이와 같은 공간의 분할은 다양한 '사적' 공간을 탄생시키며 근대문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근대문학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하기 어렵다.⁷⁾

이 글의 목적은 한국 근대문학에서 '사적' 공간이 어떻게 탄생하고 그것이 문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주거공간에서 사적 공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근대 초기의 조선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근대의 문학이 사적인 공간의 역할없이 탄생하고 문학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근대 유학생의 기숙사,

활의 역사』 5, 새물결, 2006. 58~61쪽 참조.

- 6) 이진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19세기 ‘중간계급’ 내지 부르주아지의 사적인 주거공간이 이전 시기 귀족들의 주거공간 안에서 사생활의 욕망이 작동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런 만큼 사생활의 욕망이 어떤 진화적인 성장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주거공간의 역사를 사적 공간의 진화의 역사로 간주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반대로 근대의 ‘사적 공간’은 귀족들의 저택을 ‘모방’하는 경우에도, 귀족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방식의 형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생활방식과 방들의 용법 내지 분포의 새로운 계열화를 통해서 형성된 이질적인 배치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역사는 사적 욕망의 내적 발전도, 사생활의 공간을 향한 진화과정도 보여주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어린 이와 가족 생활, 결혼과 성적 관계, 아이들의 양육방식과 교육방식, 그리고 그와 결부된 방들의 새로운 이용 등처럼 서로 독립적이고 분리된 선들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선으로 수렴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만큼 그것은 이전의 귀족들의 생활양식이나 주거공간에 대해서 외적인, 그 외부에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5, 330~331쪽.
- 7) 연구자는 근대적 시간이 문학에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문학의 변화 및 특징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근대적 ‘시간’관념과 문학의 존재방식-양건식의 『귀거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37, 한국문학회, 2004. 8. 참조.

특히 하숙방을 주목한다. 그들이 근대 지식의 습득을 위해 유학을 선택하게 될 때 기숙사나 하숙방은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공간은 사적인 특성을 일정 부분 지니면서 근대의 문학에 간여하기 시작한다. 이런 점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기숙사, 특히 하숙방이 근대문학에 간여하는 방식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숙사·하숙방의 등장과 사적 공간

1. 규칙과 규율, 통제되는 공·사 공간‘기숙사’

중세의 주거공간에서 방들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기능적이고 다가적인 공간이었다.⁸⁾ 이후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과 함께 가족 단위의 분할 및 가족 내에서의 재분할, 공간의 기능적 분화와 특정화,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사적 공간⁹⁾ 등의 방향으로 주거공간은 분할되고 배치된다. 그런데 근대 초기 조선의 경우, 산업의 발달 및 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부르주아 계층의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근대적 공간 배치 역시 찾아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주거공간이 근대적으로 분할되어 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무정》에 등장하는 ‘김 장로’의 집은 이런 점에서 흥미롭다.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하는 어멈의 말을 따라 새삼스럽게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중문을 지나 안 대청에 올랐다.

전 같으면 외객이 중문 안을 들어설 리가 없건마는 그만하여도 옛날 습관을 많이 고친 것이다. 대청에는 반양식으로 유리 문도 해 달고

8) 이진경, 앞의 책, 139쪽.

9)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계보학」, 이진경 편저, 『모더니티의 지층들-현대사회론 강의』, 그린비, 2007. 223쪽.

가운데는 무늬 있는 책상보 덮은 테이블과 네 다섯 개 홍모전 교의가 있고, 북편 벽의 한 길이나 되는 책상에 신구 서적이 쌓였다.¹⁰⁾

‘김 장로’의 집은 우선 대문이 있고 줄행랑이 있으며, 대문을 지나면 중문을 거쳐 안채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했던 안채의 대청마루는 여기서 응접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재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치는 서술자가 ‘반양식’이라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 양반의 주거공간에 서양식의 방식이 가미된 것이다. 또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김 장로’의 부인과 김선형이 건넌방에서 발(簾)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과 가족구성원의 방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의 공간 역시 어머니의 방과 분리되어 있다. 선형이 이형식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나오는 곳은 애초 어머니와 함께 나왔던 ‘건넌방’이 아니라 ‘저편 방’으로 지칭된다.¹¹⁾ 즉 선형은 이형식을 만나기 위해 어머니의 공간인 ‘건넌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부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방인 ‘저편 방’으로 가서 책과 연필을 들고 오는 것이다.

이처럼 ‘김 장로’의 집은 여러 가지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그러나 김 장로 가족의 공간은 근대적으로 온전하게 분할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형의 경우만 하더라도 같이 영어를 배우게 되어 있는 ‘순애’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청마루에서 훤히 보이는, 여름이라 아마 문을 열어 놓고 ‘발(簾)’을 드리운 것만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

10) 이광수, 《무정》, 『이광수 전집』1, 삼중당, 1962. 10쪽.

11) 선형의 어머니와 선형이 나오는 방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윽고 **건넌방** 발이 들리며 나이 사십이 될락 말락한 부인이 연옥색 모시적삼, 모시 치마에 그와 같이 차린 여학생을 뒤세우고 테이블 곁으로 온다.”, “『네』하고 선형이가 일어나 **저편 방**으로 가더니 책과 연필을 가지고 나온다. 그 뒤로 선형과 동년배되는 처녀가 역시 책과 연필을 들고 나와 공순하게 읊한다.” 위의 책, 11~12 쪽 및 13쪽.(강조, 인용자)

간이 선형 어머니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김 장로’의 집에서 온전한 근대적 의미의 사적 공간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김 장로’의 집은 근대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다기보다는 전통적 공간을, 서양풍을 모방하여 몇 가지 기능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공간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근대 초기 조선의 현실이었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공간은 근대 지식을 획득하는 공간인 학교를 중심으로 획득된다. 근대 지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선택하게 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주거공간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기숙사나 하숙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된 기숙사와 하숙방은 기존의 전통적인 주거공간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확연하게 구분된다.

우선 기숙사를 살펴보자.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근대 초기에는 많은 학교에서 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듯하다. 1882년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1884년 조선에 들어왔던 알렌(Horace N. Allen)은, 1885년 왕실의 도움으로 근대적 왕립병원이었던 광혜원(이후 제중원으로 개칭)을 설립하고 이듬 해 병원부설의학부를 설립한다. 그리고 1885년 선교를 목적으로 입국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는 당초 알렌이 설립했던 의학부에서 과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다가 1886년에 고아를 위한 기숙학교인 ‘언더우드 학당’을 창설한다.¹²⁾ 또 여성교육기관이었던 배화학당에서는 여학생들을 모두 기숙사에 수용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1898년부터 1902년까지는 통학생을 받지 않고 기숙생만으로 학당’을 경영¹³⁾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립한성사범학교에서는 본과와 속성과 학생들에게 학자, 식비, 피복 잡비를 제공하고 급비생에게는 기숙사 입사를 의무화하였다.¹⁴⁾ 또 이화학당은 로드 와일

12) 馬越 徹, 『韓國近代大學の成立と展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43쪽.

13) 『배화60년사』, 1958. 여기서는 吉川昭, 李成鉦 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경인문화사, 2006. 79쪽에서 재인용.

러 학당장이 재임하던 1890~1892년에 기숙사칙을 제정하였고, 당시에는 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이 5~6개 있었으며 이후 15개까지 방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14년에는 ‘보구여관(保救女館)’을 교실과 침실로 개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⁵⁾ 평양에 설립되었던 숭실학교 역시 1901년 경 벽돌집 단층 건물 2동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였고¹⁶⁾ 불교계 학교이며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明進學校)’에서는 전체 학생을 ‘원흥사(元興寺)’에 기숙하게 하였다¹⁷⁾고 한다.

기숙사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설치되고 있다. 당시의 기숙사에는 대체로 한 방에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6명 정도의 학생을 입사시킬 수 있었던 듯하다. 한편 일본에 유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기숙사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조선의 기숙사가 일본의 형태를 본뜬 것¹⁸⁾이었던 만큼 당시의 일본에서는 기숙사가 조선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⁹⁾ 특히 일본 근대 초기 당시의 ‘시주쿠(私塾)’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수용했던 일종의 학문공동체였는데, 여기의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생이거나 통학생이었다.²⁰⁾ 한편 동향회에서 건립한 기숙사는

14) 위의 책, 160쪽.

15) 『梨花百年史』, 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84~85쪽 및 173쪽 참조. 여기에 등장하는 ‘보구여관(保救女館)’은 1885년 의사 겸 선교사였던 스크랜톤(W. B. Scranton-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이 여자 아이들을 위한 병원으로 개설했으며 그의 어머니 스크랜톤 부인이 1886년 도착하여 학생 1명을 상대로 학교를 열었다. 첫 번째 학생은 정부고관의 첩이었고 두 번째 학생은 성문 밖에 버려진 병든 거지 여자였다. 그리고 1887년 학생이 7명으로 늘어나자 명성황후가 ‘梨花學堂’이라는 이름을 하사한다. 馬越 徹, 앞의 책, 45~45쪽.

16) 『숭실대학교 100년사1-평양숭실 편』, 숭실대학교, 1997. 99~100쪽.

17) 70년사편찬위원회, 『東大七十年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14쪽.

18) 앞에서 예로 든 한성사범학교의 경우 학제와 제 경비 제공 및 기숙사는 일본을 예를 따른 것이었다. 吉川昭, 李成鉉 역, 앞의 책, 79쪽.

19) 예를 들어 1907년 이광수가 유학했던 백금학원은 1907년 당시 ‘협번관’이라는 기숙사가 있었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 한길사, 1986. 173쪽.

20) 이건상,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 『일어일문학』3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6. 11, 184~185쪽.

특정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 등 다른 나라의 유학생은 입사할 기회가 그만큼 적었던 듯하다. 특정한 지역의 동향회가 기숙사를 짓고 그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²¹⁾ 따라서 일부의 조선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건립한 기숙사에 입사해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는 때때로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 기숙사는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青春』9, 1917. 7), <彷徨>(『青春』12, 1918. 3) 등의 작품에서 중요한 소설적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어린 벗에게>에서 ‘나’(임보형)는 ‘김일련’을 만나기 위하여 그녀가 다니는 여학교 기숙사를 방문한다. 그리고 ‘나’의 거처도 ‘숙소(宿所)’ 또는 ‘숙사(宿舍)’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기숙사인 것으로 생각된다. <彷徨>에서 ‘나’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학교에 간 후 혼자 기숙사에 누워 앓고 있다.

室内的 空氣는 참 차다. 마치 죽은 사람의 살 모양으로 붉하게도 싸늘하다. 四壁에 걸린 「기모노」의 소매로서 차디찬 안개를 대하는 듯하고至今껏 나를 들여다보던 차디찬 灰色구름 덮힌 하늘이 눈가루 모양으로 가루가 되어 琉璃窓 틈과 다다미 틈과 벽 틈으로 훌훌 날아들어와 내 니불 속으로 모혀 들어오는 듯하다. 마치 내 살과 피의 모든 세포에 그 차디찬 하늘 가루가 돌라부터서 그 細胞들을 열게 하라는 듯하다. 나는 니불을 푹 막쓰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이 들기를 바라는 사람 모양으로 가만히 잊었다. 내 心臟의 똑똑 뛰는 소리가 니불에 反響하여 歴歷히 들린다. 나는 한참이나 그 소리를 두다가 참아 더 못지 못하여 얼굴을 내어놋코 눈을 번쩍 찼다. 「그것이 내 生命의 소리라고나」하고 가만히 天井을 바라보았다.²²⁾

21) 대도시에서 형성된 일본의 동향회에서는 기숙사를 짓고 그 지역출신의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하숙의 경우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타락하기 쉽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기숙사로는 도쿄에 머무는 ‘스야마 청년 협회회원’을 위한 기숙사인 ‘학산관’ 등을 들 수 있다. 나리타 유이치, 한일비교 문화세미나 옮김,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67~176쪽 참조.

‘나’는 유리창을 통해 희색빛 하늘을 바라보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심장뛰는 소리에서 ‘나’의 생명을 생각하고 흐리고 구름 낀 하늘을 내다보며 죽음을 생각한다. 근대지식인의 내면고백이라 할 수 있는 이 장면이 혼자 누운 기숙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숙사가 사적으로 기능하며 내면을 드러내는 공간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의 내면에는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과학 용어 등이 반복해서 노출되어 있고 개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지식인의 사회적 의무 등이 뒤섞여 있다.

그렇지만 기숙사는 사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순식간에 요란한 공공의 장소로 변해버린다.²²⁾ 때문에 기숙사가 혼자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결국 기숙사는 때때로 사적인 공간의 특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유학생의 온전한 독립적 공간으로 기능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나’가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울러 기숙사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마련된 것인 만큼 공동의 시설과 엄격한 규율이 함께 존재한다. <彷徨>에서의 기숙사는 일층에 자습실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침실은 2층에 있다. <어린 벗에게>에서 ‘나(임보형)’이 김일련을 만나는 공간 역시 기숙사의 공동 응접실이다. 또 당시 동향회에서 건축한 기숙사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정해 놓고 있기도 했다. 도쿄에 머무는 ‘스야마 청년협화

22) 이광수, <彷徨>, 『青春』12, 1918. 3, 75~76쪽. 여기서 기숙사는 약 13평 정도로 보인다. 이 작품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學生寄宿舍의 二十四疊房’(같은 책, 74쪽)이라는 표현에서 그 크기를 추산할 수 있다.

23) 學校에 갔든 舍生들이 돌아왔는지 아랫층에서 신 쓰는 소리도 나고 말소리도 들린다. 옛던 사람이 日本 俗謡를 부르면서 食堂째로 통통 뛰어가는 소리도 들린다. 寄宿舍 속은 다시 살았다. 또 사람들이 우적우적하는 세상이 되었다. 나는 여러 舍生들의 모양을 생각하고 不快한 마음이 생겼다. 이광수, <방황>, 『青春』12, 1918. 3, 87쪽.

회'에서 건립한 '학산관'의 경우, 기상 및 취침 시간은 물론 외박, 위생, 결석 등의 모든 상황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²⁴⁾ 조선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화학당에서 1890년~1892년에 제정된 기숙사 규칙을 보자.

1. 학도는 기숙사의 범칙(凡則)을 엄수하고 동학(董學)의 허락이 있어야 출입함이라.
2. 아침 7시에 기상하여 8시에 식사하고 9시에 상학(上學)하여 오후 4시에 하학(下學)함이라.
3. 5시에 석식(夕食)하고 7시에 기도회로 모임이라.
4. 9시에 등불을 끄고 제자리에 누우면 교사들이 자리 옷을 입고 누웠나 조사함이라.
5. 자기 방을 매일 일찍이 쓸고 닦으며 반드시 자기 거처를 깨끗이 함이라.
6. 병이 났을 때는 그 방의 학원(學員)이 사감에게 급속히 알림이라.²⁵⁾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기숙사의 학생들은 출입은 물론이고 하루의 일과를 모두 규율 속에서 통제받고 있다. 이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때, 퇴사되는 것은 물론이다. 공동의 생활을 위해 규율로 통제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시간을 강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푸코를 떠올리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점에서 기숙사는 근대의 공간으로 탄생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온전한 사적 공간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웠다고

24) 「학산관 관칙」은 기상·취침시간(오전 5시반/6시반~오후 10시/11시)과 통금(오후 8시/10시), 외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실내 청결 정돈의 책임”,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정돈하며 위의威儀를 바르게 한다”는 것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수업에 결석했을 경우에는 학산관에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야마청년협화회잡지』에는 재관생在館生 1인의 외박일수, 지각·결석일수, 여행일수가 ‘신고/신고하지 않음’으로 구별되어 기재되고 있다. 이상 나리타 유이치, 앞의 책, 168쪽.

25) 『이화100년사』, 84~85쪽.

할 수 있다.

하숙방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의 유학생들은 ‘하숙’을 선호한다. <岐路>에서 문치명은 김철수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털보 선생의 서울 집에서 나와 하숙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고 <苦學生>에서 창호 역시 외가를 나와 하숙으로 이사한다.²⁶⁾ 그리고 <尹光浩>에서 깨끗한 하숙방은 장래가 촉망되는 근대지식인의 미래가 보장되는 꿈의 공간처럼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²⁷⁾

2. 획득되는 사적 공간, 고독한 하숙생

하숙방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 획득되는 공간이다. 집주인과 하숙을 구하는 두 당사자가 금전적 조건과 식사 등의 일상적 문제까지를 포괄하여 이해(利害)의 폭을 조절하여 계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한 하숙방은 그것을 획득한 사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숙방이 그들이 생활했던 이전의 공간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쟁-쟁』 아침 날곱 時를 報하는 卦鐘 소리를 들으면서 二層 집 「四疊半」房 中央에 널줄이 혼자 占領하였던 木棉蒲團을 털석 저치고 一場鄉 夢을 일즉이 깨여 긴 활개를 하푸엮과 가치 떠면서 「네마기」(자리옷)을 벗고 아롱아롱한 긴 소매 달닌 옷을 가라 닙는다

26) 이상춘, <岐路>, 『青春』11, 1917. 11, ㅈ 흥 생, <苦學生>, 『唯心』3, 1918. 7.

27) 그러나 지금은 東京 一流大學에 學生이 되고 婢僕이 承命하는 下宿의 깨끗한 房에서 富貴家의 書房님이나 다름이 업는 高尚하고 安樂한 生活를 하게 되었스며 兼하여 前途에는 洋洋한 希望이 있다. 그는 東京留學生 中の 一人이라. 數年이 못하여 朝鮮最高級의 人士되기는 至極히 용이한 일이라. 이렇게 光浩가 자기의 少年時代와 現生活를 比較할 때에는 喜悅의 微笑를 禁치 못하는 것은 勿論이다. 이광수, <尹光浩>, 『青春』13, 1918. 4, 68~69쪽.

개표 소지

이 때에 下女가 障子를 방싯 열고 꾸러 안으며 간은 목소리로 『오하 요 고자이마쓰』라고 아침 인사를 곁한 後에 사운사운 걸어들어와 『蒲團』을 壁襪에 거두어 너코 툽툽이 다닷던 「마마도」(것둔)을 착 열고 윈 房안을 灑掃한다 -중략- 案頭小鏡에 憔悴한 얼굴을 비쳐보면서 門 안에 떨어지는 몇 種 新聞을 그러당기여 世界趨勢의 이리저리한 形便을 大綱 斟酌하며 社會 局面의 엇더엇더한 새 運動 새 展開를 늦겨 생각하다가 下女の 恭順하게 맞들어 나오는 아츨 榻床을 바다 「미소시루」(원장국) 한 그릇과 「다우왕」(겨짐치) 두서너 쪽으로 밤새도록 주렸던 배를 적어 차인다.²⁸⁾

위의 글 뿐 아니라 <요조오한(四疊半)>(『大韓興學報』8, 1909. 12), <부르지짐>(『學之光』12, 1917. 4) 등의 작품에서도 당시 일본의 하숙방은 이층의 ‘사침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 유학생의 하숙방은 이층에 약 두 평 반 정도의 크기로 규격화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로 미루어 일층에는 주인이 살았을 것이며, 이 방에 드나드는 하녀(下女) 역시 일층에 방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로도 이어진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소설을 포함한 근대 초기의 여러 글들에서 하숙생과 주인이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순성의 <부르지짐>에서 ‘張順範’이라는 하숙생이 일층에서 죽어가는 주인을 잠시 문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기 어렵다. 거기에도 위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녀는 아침과 저녁에 밥상을 차리거나 이부자리를 정돈하는 것,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차 심부름 하는 정도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또 ‘오하요 고자이마쓰’라는 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들어가는 사실을 하숙방의 주인에게 알리는 절차 역시 거치고 있다. 유학생들이 획득하는 이런 공간은 그 의미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28) 小星, 「東京 留學生 生活」, 『青春』2, 1914. 12, 110~111쪽.

근대적이며 사적인 특성을 지닌 공간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과 달리 부르주아 계층의 발달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조선의 경우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하숙방’이라는 사적 공간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다. 유럽 부르주아 계층의 사적 공간이 부부와 어린이 등의 가족과 밀접하게 연관²⁹⁾되어 있다면, 조선의 유학생들이 체험하고 확보하는 사적 공간은 가족과 분리될 때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양식의 단계적 발전이나 특정한 계급의 경제적 성장과 상관없이 근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학교’라는 제도가 생활의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사적 공간’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생활 조건의 변화는 ‘근대’의 ‘문명’, ‘학문’ 등과 연관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 조선의 젊은이들이 ‘문명’을 달성하고 ‘학문’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선택했을 때 근대적 성격을 띤 사적 공간은 ‘하숙방’의 형태로 그들 앞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특성이 강조되어 있는 ‘하숙방’을 소유한다는 것은 근대에 들어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명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계층으로 부각되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실제로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학

29) 다음을 보자. “이렇듯 가족이 모든 사랑과 정열을 집중해야할 배타적 장소가 됨에 따라, 더불어 가족 외부의 모든 공동체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대립적인 세계가 됨에 따라, 가정성에 대비된 사회성은 급격히 축소된다. 가족적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태도, 달콤한 가정생활의 꿈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죄악으로 간주하여 비난하고 파괴하려는 태도는 이러한 새로운 욕망의 배치의 산물이며, 그 배치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단면(斷面)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욕망이 가족을 위해, 부부관계와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귀착되며 모든 활동이나 노동, 행동이 결국은 가족을 위한 것으로 귀착되는 이러한 욕망의 배치, 더불어 그러한 생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의 경계에 두터운 벽을 쌓고 타인의 침입에 대해 배타적 방어막을 치고, 거칠고 험한 외부세계와 반대로 ‘젓과 꿀이 흐르는’ 편안하고 행복한 안식처로 가정을 만들려는 욕망의 배치가 탄생한 것이다. 18세기 후반 혹은 19세기에 부르주아지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이러한 새로운 욕망의 배치에 우리는 ‘가족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310쪽.

비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³⁰⁾ 도시에서의 문명 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며, 교외로 소풍을 가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바닷가로 해수욕을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활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근대 문명에 소속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일종의 계급적 특권의식과도 연관되어 있다.

‘하숙방’은 이런 점들 때문에 고향의 ‘집’이라는 공간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고향의 집은 그들에게 개인적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고향에서는 ‘누나는 내 얹혀 놓고, 나는 어머니 얹혀 누’워 잔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웃집 아해들이 몰려와서, 이야기’³¹⁾를 하고 논다.

30) 이 당시에는 본인이 학비를 부담해야 했던 사비유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재정 상태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日本留學生史』, 『學之光』6, 1915. 7, 10~17쪽 및 김영민, 「근대적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300~302쪽 참조). 『太極學報』14호에 실려 있는 椒海生(이 사람은 당시 ‘태극학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던 ‘金洛泳’이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한국 근대소설에서 인생과 생활의 발견」, 『한국민족문화』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24쪽 참조)의 <恨>이라는 소설은 앓아누운 동경유학생이 학비를 전혀 보내주지 않고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조선의 부모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또 「苦學生의 情形」(『太極學報』12, 1907. 7)이라는 글에서는 하숙방에서 쫓겨나고 학교를 그만 둔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여 학교를 졸업한 후 후일 국가에 헌신하는 인물이 되지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苦學生同盟’을 결성하고 ‘苦學生同盟趣旨書’를 채택한다. 또 『大韓興學報』6호(1909. 10)에는 具岡, 「日本苦學生의 情形을 擧야야 我 本房 同學諸君에게 告하노라」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신문 배달 및 판매, 우유 배달, 관청의 서류 필사, 인력거꾼 등 당시 가능한 고학의 방법을 대략적인 급료와 함께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고학생’을 다룬 일련의 소설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즐고, 「근대적 욕망의 추구와 서사화 방식-1910년대 소설의 고학생 모티프와 ‘자본’의 논리」, 『語文研究』41, 어문연구학회, 2003. 4. 253~276쪽 참조.

31) 유종석, <母子의 情>, 『青春』13, 1918. 5, 92~93. 물론 이 작품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떨어져서 서울로 온 ‘중수’가 서울에서 첫날 밤을 지내면서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고향에서의 공간이 개인적으로 분화되지 않고 가족 및 이웃들과 공유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수는 서울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 때가 되면 들에 일하는 소들이 방울을 절렁절렁 흔들면서 도라온다. 얼굴을 벌겋게 태운 농꾼들은 제각기 器具들을 메이고 소리를 하면서 도라온다. 저녁 먹을 때가 지나면 온동네 사람들은 이 모퉁이 저 모퉁이 모혀 안는다. 그들의 처음도 엮고 싯도 엮는 이약이가 으슬으슬한 空氣 속에 움죽인다. 엇던 이는 쌀아 노은 명석 우에 누어서 한 팔을 니마 우에 언고 잇스며 또 엇던 이들은 쭈구리고 안저서 담배만 꺾꺾 피운다. 또 엇던 이는 자미나는 이약이를 한참 하면서 혼자 썬들고 웃는다.³²⁾

저녁이 되어 하루의 노동이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 이야기 내용은 대개 마을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겠지만 정작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밤에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간의 모습이 오히려 선명하게 부각된다. 고향 마을의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의 분화 또는 재배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전통 사회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반면 유학생의 상황은 이와 매우 다르다. 그들은 학교의 수업을 마치거나 학비 마련을 위한 노동(고학생의 경우)을 끝낸 후 하숙방에 돌아오면 대부분의 경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³³⁾

高學秀는 冷泠한 碚인 房에서 외로운 燈불-뿌러진 窓戶 사이로 사정 업시 부러드러오는 차고찬 바람에 싸혀잇는 燈불-을 靚하야 서리와 가튼 呼吸을 자조하며 數千里 밖에서 小包에 싸여온 벗(혜질의 우주론-인용자)과 問答도 하고 討論도 하야 길고긴 그 밤이 어느듯 다가고 燦爛한 일광이 東窓에 빛초임을 깨닫지 못하얏다. 아아 精神的으로 孤獨한 高學秀의게 萬一 이 두 벗(책과 달-인용자)이 업섯드면 어느 곳에 마음

32) 朱落陽, <마을집>, 『青春』11, 1917. 11, 56쪽. 여기서 朱落陽은 주요한이다

33) 물론 하숙방이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은 아니다. 여기에서 친한 사람들이 모여 여러 근대 문명과 개인, 사회, 국가 등 온갖 담론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을 벗쳤슬고!?)³⁴⁾

근대적 삶의 익명성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근대의 유학생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인용의 ‘고학수(高學秀)’처럼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대도시에서 미래의 꿈을 위해 밤낮없이 학문에 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근대의 학문을 획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향락을 좇아 거리를 방황할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근대의 학문은 번잡하고 시끄러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책 속에 근대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팔아서라도³⁵⁾ 책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근대의 지식은 묵독을 통해서 획득되는 까닭에³⁶⁾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은 필수적이다. 근대 유학생에게 ‘하숙방’은 이와 같은 조건을 훌륭하게 충족시킨다. 그들은 하숙방에서 책을 벗 삼아 문답·토론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간다. ‘三年이 지난 後에 新聞이나 或 雜誌에서 자조 高學秀의 姓名을 보’³⁷⁾게 되었다는 것은 근대의 유학생이 꿈꾸는 학문적 성취를 은유하는 것이다.

또 하숙방은 오직 개인적인 관심과 취미에 따라 꾸며진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되는 것이겠지만, 대륙문사의 소설이나 시집과 순문에 잡지, 그리고 고리끼와 투르게네프의 소조는 이 공

34) 이상춘, <두 벗>, 『青春』10, 1917. 9. 113쪽.

35) 고학수가 소포로 받은 헤겔의 ‘우주론’은 외투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구인 ‘우순명(禹順命)’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고학수는 ‘後日에 자네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까’ 두렵다며 ‘남의 恩事를 빚기를 질기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상춘, 같은 책, 같은 곳). 그리고 ‘고학수(高學秀)’라는 이름은 학문적으로 우수하다는 뜻을 단고 있는 데 반해 ‘우순명(禹順命)’의 경우는 운명에 순종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근대 지식인의 관념이 등장인물의 명명(命名)에 작용한 예일 것이다.

36) ‘공동체적 독서/음독’과 ‘개인적 독서/묵독’의 구별은 이 경우에도 타당하다.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향적으로 관찰된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108~133쪽 참조.

37) 이상춘, <두 벗>, 『青春』10, 1917. 9. 113쪽.

간을 사용하고 있는 하숙생의 개인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소품들이 다.³⁸⁾

二層 위 南向한 「요조오한」이 咸映湖의 寢房, 客室, 食堂, 書齋를 兼한 房이다. 長方形 冊床 위에는 算術教科書라 修身教科書라 中等外國地誌 等 中學校에 쓰는 口課冊을 꼬진 冊架가 있는데 그 넙흐로는 동씨러진 大陸文士의 小說이라 詩集 等の 譯本이 面積이 좁은 게 恨이라고 늘어싸혔고 新舊刊의 純文藝 雜誌도 두세 種 노혔으며, 學校에 다니는 冊褌子는 열十字로 미인 치 그 밋헤 바렸으며, 壁에는 勞動服을 입은 오오리찌와 바른 손으로 불을 버틴 투우르케네브의 小照가 걸녇더라.³⁹⁾

그뿐만이 아니다. 하숙방은 또 ‘寢房, 客室, 食堂, 書齋를 兼’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물론 하숙방이 기본적으로 식사와 주거를 해결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공부방과 일종의 응접실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가난한 유학생이 같은 처지의 동료들 만나 밤새워 토론하며 고민을 공유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는 공간이 또 하숙방인 것이다.

「映湖잇소」

하고 서슴지 안코 들어오는 사람이 잇서 「落城一別四千里에 未知近況이 何如」를 豪氣있게 질느니 바야흐로 이리저리 어저러워진 생각에 空然히 혼자 苦生하던 映湖가 急한 비스소리에 잠을 깨우듯

「이게 누구요 이거 웬 일이야」-중략 얼마 있다가 蔡의 煩惱懷古談이 나오고 咸의 思想傾向談이 나와 여러 가지 學生界에서 別노 쓰지 아니 하는 셋홀은 文藝上 文字가 두 사람의 衽살에서 떠러지는데 얼어가는

38)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서울의 경우 2층집의 형태가 대부분인 일본과는 달리 하숙방은 단층의 전통적인 조선의 가옥에 속해 있었겠지만, 김주인이 거주하는 공간과는 물리적이거나 적어도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9) 夢夢, <요조오한(四疊半)>, 『大韓興學報』8, 1909. 12. 23쪽. ‘요조오한’은 두 평반 정도의 일본식 다다미 방을 일컫는 동시에 그들의 지식과 의식의 내적 공간이다. 주종연, 『한국근대단편소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1. 49쪽 참조.

물과 풀너가는 어름이 한이는 올라가기 爲하야 혼이는 내려가기 위흐야
氷點에서 서로 못났스나 그러나 兩邊의 귀는 各其 對手에게로 기우러졌
디라.

마조막에 咸은 가장 熱心으로

「個性의 發揮는 지금 나의 希望欲求의 全體인데 이 생각은 은제까지
도 變함이 업슬 것 갓소」

하고 蔡는 虛無主義者로서 社會主義者로 돌아오든 말, 自然主義로서
道德主義로 로맨틱 思想에도 取할 것 갓 一理가 있는 것과 主義 그것이
매우 우수하나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이든지 사람이 客氣를 가져야 하겠
단 말을 다한 뒤에

「이것저것 다 쓸 대 잇소 술이란 것이 長醉不醒은 못하는 것이고 또
몰하면 實地를 밟으지 못하길네 理想이란 물이 存在하는 것이지마는 번
연히 이런 줄을 알고 잇다가도 참으로 實世間에 접촉할 때에는 限量업
는 哀感이 새삼스럽게 납디다」

하면서 무슨 意味가 잇는 듯 포켓트에 손을 집어느면서 이리나 「時代
의 犧牲」이란 소리를 여러 번 노랫調로 불으더라.⁴⁰⁾

하숙방에서 그들의 고민은 거침없이 토로되고 있다. 유학 이후의 지적
여정은 물론, 개성, 허무주의, 사회주의, 자연주의, 도덕주의, 로맨틱 사
상 등의 근대적 관념이 여과없이 드러난다. 길지 않은 유학 기간, 더구나
‘채’의 경우 헤어진 지 약 일 년 반 정도의 기간만에 위에 나열된 모든
관념과 사조를 섭렵하고 이를 내면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
라서 이들의 의식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근대의 학문적 흐름과 개인적 고민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숙방에서
고백의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시사적이다. 하숙방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지적으로 비
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
이다. 중세 유럽의 ‘살롱’이 문화적 공론장을 형성하듯 하숙방에서는 문
학을 비롯한 근대적 관념들이 토론되며 사적인 비밀⁴¹⁾을 서로에게 털어

40) 夢夢, <요조오한(四疊半)>, 『大韓興學報』8, 1909. 12, 24~29쪽.

놓는다. 가끔씩 등장하는 ‘하비(下婢)’는 두 사람의 대화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 ‘하비(下婢)’는 단지 두 사람에게 ‘차와 먹을 거리’를 가져다 주거나 잠자리를 펴고 가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으며 ‘粉을 더덕더덕 밭’랐다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동질감이나 정서적 유대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하숙방에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비슷하거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이제 하숙방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유학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났던 ‘하숙방’이라는 공간은 이제 그들의 의식과 사고를 좌우하고 근대 학문을 획득하는 공간이며 나아가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Ⅲ. 하숙방이라는 문학 공간, 근대문학의 공간 분할

1. 개성과 내면, 하숙방의 근대문학

근대의 문학이 성립하기 위해서 ‘개인’의 확립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근대문학에서 흔히 강조되는 ‘내면’이나 ‘고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내밀성(intimacy)’ 등의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중세 이전의 개인이나 그들의 내면 및 고백이 ‘신(神)’과의 관계에서 성립⁴²⁾되고 있다면, 근대의 개인은 ‘자아 대 세상(ego contra mundum)’의

41)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책임편집, 『사생활의 역사』5, 새물결, 2006. 111쪽.

42) 아론 구레비치, 이현주 역, 『개인주의의 등장』, 새물결, 2002. 162쪽. 여기서 아론 구레비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자신에 대해 묵상하고 본래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한 사람(person)으로서 그는 신을 대면하고 신과 자신을 비교한다. 고백하는 상대는 신이며 신 이외의 모델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진경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밀성(intimacy)이란 드러나지 않는 것, 자신만의 고유한 것,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없이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쉽사리 ‘친밀

구도를 형성⁴³⁾한다. 근대에 들어 1인칭 화자의 고백적 소설이나 일기와 같은 문학적 형식이 급속히 부각⁴⁴⁾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학생의 하숙방은 이와 같은 개인성과 내밀성을 형성하게 하는 공간이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을 회의하고 조선을 걱정하며 세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다시 하숙방의 풍경을 들여다보자.

시벽 다 밝을 臨時에 어수선 散亂혼 꿈을 꾸고 因히 씨여 자리 속에서 뒤치적거리다가 이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들 수 업시 묵어워 무엇이 위에서 나리누르는 것 갖히 서 心氣가 슯치 못혼 나는 아모 것도 흐기가 슬혀 書齋(卽 寢房)에 꼭 들어안즌 치로 멀거니 書案을 對하고 안졌다 이즘 愛讀혼든 「虐げられし人々」라는 小説도 그 압해 노히여 잇건만은 아조 불 싱각도 업서 돌연히 連續혼야 五六本이나 朝日을 꿰었다혼즈 어느덧 그 푸른 煙氣가 籠트림을 혼야 朦々히게 房中에 자욱혼야 漸々 더 머리롤 너러누르는 것 갖히서 견딜 수 업다. 暫間 일어서서 窓틈으로 밖게를 너허다 보니 晴朗혼 하늘이 비힌다 다시 고기를 돌니는 바롬에 西便 壁에 걸니여 잇는 肖像函-勞動服을 입은 露國 文豪 挀심, 콜키의 半身像이 눈에 번듯 제인다 나는 瞥眼間 精神이 앓득혼야 폭 쥬

함'의 표상과 결부된다. 그러나 내밀성이 친밀성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내밀성이 개인의 고유성/소유(property)로 간주되고 그런 만큼 프라이버시로, 은밀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게 되는 19세기 이후의 관념일 뿐이다. 중세나 절대주의 시대에도 내밀성의 개념은 있었으며, 내밀성이 작용하는 고유한 영역 역시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중세의 경우 내밀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신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었고 공간적으로 신이 제공하는 성스러움과 결부되어 있었다. 신과 자신을 잇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 자기 내부의 내밀한 선, 그것이 바로 내밀성의 선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밀성은 신과 직접 관계할 수 있는 자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었고, 또한 바로 거기에 제한된 것이기도 했다.”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7. 332~333쪽.

43) I. Watt, 이시연·강유나 옮김, 『근대 개인주의 신화』, 문학동네, 2006. 181쪽.

44) 김연숙, 「근대 가족과 프라이버시의 탄생」,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현대문화론 강의』, 그린비, 2007, 363~364 및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339~340쪽 참조.

저 안졌다⁴⁵⁾

서재와 침실을 겸하고 있는 ‘나’의 방은 당시 하숙방의 전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나’는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댄다. 물론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안의 모습은 ‘나’의 내면을 은유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런 방에서 ‘나’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읽고 있고 벽에 걸린 막심 고리키의 초상은 밤낮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근대 초기의 소설에서 고리키나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등의 작가는 계속해서 등장⁴⁶⁾하는데 이들은 나의 자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고리키의 초상을 의식하는 순간 ‘瞥眼間 精神이 앓득하야 폭 주저’ 앓았다는 것은 그들의 자의식이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 고리키 등의 시선 아래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면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면은 개인이나 제도 등 다른 존재의 감시의 시선 아래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그것은 ‘감시하는 자 없이도 감시하는 시선이며, 감시하는 장치 없이도 작동하는 장치며, 스스로 작동시키는 만큼 자동적으로 작동’⁴⁷⁾하는 것이다. 그

45) 양건식, <늙은 矛盾>, 『반도시론』2권 2호, 1918. 2, 71쪽. 이 작품의 경우 ‘나’는 사실 유학생이 아니라 현재 서울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지식인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도시의 학교를 자신의 집에서 통학한 학생들의 경우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방의 풍경이나 기능은 유학생의 하숙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위의 공간 역시 서재와 침방이라는 하숙방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고, 점심상을 들고 온 어머니는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머니는 단지 바깥에서 방안을 들여다 보면서 ‘나’에게 말을 건넬 뿐이며 그 태도 역시 일본 하숙의 ‘하비(下卑)’를 연상시킬 만큼 너무나 조심스럽다. 더욱이 ‘나’는 ‘집안 食口와 나와 취미(趣味)가 아조 달은 것’(같은 책, 같은 곳)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기도 하다.

46) 이들은 <요조오한>에서도 등장하며 이광수의 단편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물론 내일의 꿈을 향해 분투심을 불태우는 고학생의 경우 <우유배달부>에서처럼 나폴레옹 등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47) 김연숙, 앞의 글, 367쪽.

러므로 서울이나 동경 등 고향을 떠난 ‘하숙방’이라는 공간에서 접하게 된 고리끼,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은 그들 유학생을 감시하는 일종의 근대적 시선이다. 유학생들이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면화해 나갔는지는 또 다른 연구거리이겠지만, 그들 시선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하숙방’과 그 방의 주인은 당시 조선 문인들의 내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숙방의 주인들은 고향(집)을 떠나면서 부모(조상, 유교적 시선)로부터 벗어나지만 고리키나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가 상징하는 근대의 시선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⁴⁸⁾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글을 읽고 쓴다. 하숙방은 그들이 근대문학을 읽는 공간임과 동시에 일기와 편지, 소설 등 근대적 글쓰기의 공간이기도 하다.

비는 퍼부어 내린다. 쪼곰도 끈짐업시 니어 내린다. 밤은 벌서 열두時가 지나 머리마테 노여 잇는 잠鐘은 썩 나쁜 바늘이 새로 한 시時를 가라치게 되였다. 껏 방에서는 코 구르는 소리만 우뢰같이 들리는데, 아모 말 업시 우둑하니 호을노 冊床을 對하여 안갓다-

나는 지수 무엇을 생각하고 잇나? 하로 終日 學校에서 집에서 배호고 닉히노라고 무슨 「순」tion 무슨 「뿔」ful 하면서 죽을 힘을 다 써서 오이던 洋國놈의 말도 지수는 모도다 내 머리 속에서 안개갓치 스러졌다. 二三種 新聞紙에서 이것저것 쥐주어보던 獨逸軍 大勝捷이니 日支交涉이니 強盜니 情死니 하는 消息도 지수는 모도다 내 記憶 속에서 말끔 업서졌다. 번개갓치 走馬燈갓치 주르류 밀너 왔다가는 주르룩 달너가는 것은 오직 여러 가지 複雜한 思想뿐이였다 煩悶뿐이였다⁴⁹⁾

48) 1920년대 동아시아 세 나라의 문학이 러시아 문학의 강력한 영향 속에 있었다는 전형준의 전제는 1910년대와 그 이전 문학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전형준,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본 세 편의 고향」, 여기서는 김태준,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20쪽에서 재인용.

49) 小星, <비 오는 저녁>, 『學之光』5, 1915. 5, 57쪽.

말미에 ‘一九一五, 四, 十日夜’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한 이 글에서 우리는 한밤중에 홀로 깨어 일기를 쓰고 있는 유학생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옆방의 코고는 소리는 생각을 방해하는 소음이기도 하지만 ‘나’는 아직 자지 않고 있다는 차이를 부각시켜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밤중에 홀로 깨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나’는 온갖 번뇌에 휩싸여 있다. 물론 일기는 본질적으로 반성적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는 번뇌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번민은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구의 관념이나 세계정세와 사회현상, 연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유학생이 ‘나’를 고민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조오한>에서 ‘함영호’가 ‘個性의 發揮’가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문제일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고 김억은 한밤중에 현실(現實)과 현몽(現夢) 사이에서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삶과 죽음을 고민하고 있다.⁵⁰⁾ 뿐만 아니라 ‘자아’와 개인의 인격 등을 고민하는 글은 당시의 문헌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번민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 일본의 지적 분위기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 ‘근대적 개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기반이 되기도 했으며, 이는 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으로 확산되었고 ‘자기’라는 이

50) 김억, <밤과 나(散文詩)>, 『學之光』, 1915. 5, 56쪽.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밤이 왔다, 언제든지 갓튼 어둠은 밤이, 遠方으로 왔다. 멀리 쫓업는 銀가루인 듯 흰 눈은 넓은 빈 들에 널리였다. 이층 빛의 밝은 빛을 마즈라고 기다리는 듯 한 나무며, 수풀은 恐怖와 암흑에 싸이웠다. 사람들은 稀微하고 弱한 물과 함피, 밤의 寂寞과 싸호기 마지 아니한다. 그러나 차차, 오는 哀愁, 孤獨는 갓싸워 온다. 죽은 듯한 朦朧한 달은 薄暗의 빛을 稀하게도 남기었으며 무겁고도 가비압은 바람은 限업는 키쓰를 짜우며 모든 것에게, 한다. 空中으로 날아가는 날근 오랜 님의 소리 『現實이나? 現夢이나? 意味있는 生이나? 업는 生이나?』 四方은 다만 沈默하다, 그 밧게 아모 것도 업다. 이것이, 永久의 沈默! 밤의 悲哀와 밧 밤의 運命! 죽음의 恐怖와 生의 恐怖! 아々 이들은 어둠은 밤이란 곳으로 旅行 온다. 「살기워지는 대로 살가? 또는 더 살가?」하는 오랜 님의 소리, 빠르게 지내 간다. 高요의 소래, 무덤에서, 내 가슴에. 沈默”

넘은 인생, 문학, 예술의 기본적인 전제로 간주되었다.⁵¹⁾ 당시의 유학생들 역시 이런 지적 분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이 ‘개인’ 또는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⁵²⁾

그래서 이들의 번민은 근대의 문학과 깊이 연관된다. 그들의 하숙방에는 풀어보지 않은 책보가 며칠 째 그대로 내팽개쳐 있으며⁵³⁾ 그들은 때때로 학교에도 가지 않는다. 톨스토이를 읽고 인류와 전쟁을 고민하는가 하면⁵⁴⁾, 목숨을 걸고 연애를 생각하기도 한다.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이 근대 지식을 전해 주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깊은 공동(空洞)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소설과 시를 읽고 쓰며 인생을 생각한다.⁵⁵⁾ 말하자면 하숙방은 그들의 공동을 채워주는 문학적 공간이기도

51) 스키 토미, 한일문학연구회 역,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2004, 33쪽. 스키 토미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1920년대 이후 마르크시즘에 경도된 것도 이런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산업화 대중사회에서 계급대립, 계급투쟁에 대한 의식을 심화시키고 마르크시즘에 이끌려 들어갔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개인주의의 소박함에 의문을 제기하며 1920년대 중반 이후 큰 영향력을 떨쳤던 마르크시즘에 그들이 이끌려 들어간 것도, 후쿠모토 가즈오福本和夫가 ‘반성’적 개인 주체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데서 볼 수 있듯, ‘진정한’ ‘자기’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52) 물론 일본의 그와 같은 지적 분위기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당시 유학생들이 일본의 지식인들이 고민하던 ‘자기’나 ‘근대적 자아’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적 상황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으며 기계적 수용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의 ‘자기’는 이후 ‘사소설’의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자기’는 식민지 현실이나 근대 문명과 관련된 계몽적 주제로 나아갔던 것이다.

53) ‘學校에 다니는 冊褌子는 열十字로 미인 치 그 밋헤 바렸스며’ 夢夢, <요조오한(四疊半)>, 『大韓興學報』8, 1909. 12. 23쪽.

54) K Y 생, <犧牲>, 『學之光』3, 1914. 12, 40쪽.

55) 다음을 보자. “먹은 밥도 날일만 하고 갓브던 숨도 憤할 만 할 때에 冊床을 向하야 마조 안즈니 똑씩똑씩 돌아가는 時針이 下午 여덟 點을 가르친다 學校에서 배와 온 課程 冊을 이겼저것 몇번씩 넘어보고 이제까지 電氣燈에 부신 눈을 限 十分 동안 쉬인 뒤에 위쓰워드의 詩集이며 에머손의 論文이며 튜르게네르크의 小說이며 오이켄·베를손의 哲學 등을 ぜ여들고 人生의 內的 生活이 엇저니 外的 生活이 엇저니 하는 論難과 生의 要求가 업스면 自我의 創造가 업고 徹底

했던 것이다.

2. 회귀할 수 없는 고향, 근대문학에서의 공간 분할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유학을 하면서 사적 공간을 확보하고 근대의 문학을 경험한 그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낮익고 정겨운 장소가 아니다. 물론 고향은 그들이 유학을 떠나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의식되는 공간이다. 이때의 고향은 근대의 문물을 경험하고 도시적 일상⁵⁶⁾에 젖어들었던 그들에게 인습에 묶여 있는 과거의 공간일 뿐이다. 이 경우 고향은 적극적으로 개조되어야 할 대상이거나 견딜 수 없이 답답한 공간으로 묘사되기 일췌이다.

致明의 집에서는 여러 사람의 웃는 소리가 자조 새어 나온다 게집 下人은 쌀을 씻고 사내 下人은 닭의 먹을 판다 집안이 북적북적해야겠다 致明은 그 어머니의 외인 便 무릅 압혜 안고 致仙은 얼은 便에 致明과 마조 안겠다 致明의 父親과 伯父는 아랫목에 나란히 안져 있다 致明은 學校에서 工夫하든 말을 가장 滋味있게 이약이 한다 여러 사람의 視線은 모다 致明의 입으로 향하였다⁵⁷⁾

고향에서 부모가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아 하숙을 하며 고향으로 근근히 학교를 졸업한 ‘致明’이 이렇게 환대를 받는 것은 그의 형 ‘致仙’으로 인해 몰락해버린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致明’의 입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모습은 그의 역할에 집안

한 生の 覺悟가 업스면 徹底한 藝術이 업다든가……”(강조, 인용자), 小星, 『東京 留學生 生活』, 『青春』2, 1914. 12, 113쪽.

56)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고(이윤주, 『東京一日の 生活』, 『太極學報』창간호, 1906. 8. 45~47쪽), 기차를 타고 해수욕장에 가기도 하며(백악생, 『海水浴의 一日』, 『太極學報』2, 1906. 9. 53~55쪽), 원족회를 다녀오기도 한다.(『太極學會遠足會』, 『太極學報』5, 1906. 12. 52~53쪽.)

57) 이상춘, <岐路>, 『青春』11, 1917. 11, 53쪽.

과 마을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致明’은 물론 이와 같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염료 공장을 세워 2~3년 내에 집안의 재산을 회복시키겠다는 속내를 자신있게 드러낸다. 이것이 성공하면 ‘致明’은 몰락한 자신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업 중심이던 마을의 경제구조를 일거에 공업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고향’은 근대에서 상상되던 네이션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⁵⁸⁾

그러나 염료공장을 세우겠다는 ‘致明’의 치명의 계획은 대단히 낭만적이다. 염료공장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이유는 당시 진행 중이던 ‘歐洲戰爭(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염료 값이 비싸졌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아무런 자본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염료공장을 세우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서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명명에서도 이런 낭만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致明’과 ‘致仙’이라는 이름에서 ‘빛’과 ‘어둠’의 이분법적 사고를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대란 그 자체가 ‘빛’으로 상징⁵⁹⁾되듯이 ‘致明’은 빛의 인물이고, 신선을 떠올리게 하는 ‘致仙’은 과거의 어둠 속 인물이다. 이들의 승패는 애초부터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고향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향은 미래의 희망보다 과거의 절망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오랜만에 경성에 올라 와 과거를 회상하며 냉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회한에 젖는 모습⁶⁰⁾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의 김승중(金承鍾)은 ‘화려한 衣服 고운 장식’을 한 서울 사람과 대비되는 초라한 행색

58) ‘네이션’과 ‘고향’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리타 유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역, 『고향이라는 이야기-도시공간의 역사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31~143쪽 참조.

59) M. 칼리니스쿠, 이영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모더니티/아방가르드/데카당스/키치/포스트 모더니즘』, 시각과 언어, 1993. 30~31쪽.

60) 유종석, <冷麪 한 그릇>, 『青春』10, 1917. 9, 108~110쪽.

을 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변함없이 ‘인물은 繁榮하고 車馬는 複雜하며 ‘新文明의 光彩가 분명하지만, 그가 있는 시골은 ‘活社會에 活動할 能力이 없으며 ‘쓸쓸하고 寂寞한 山村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신세한탄이 절로 나온다.⁶¹⁾ 이뿐만이 아니다.

昌浩는 自己 본 곳에 도라왔다. 조고마하고 亂雜한 마을로 도라왔다. 그의 둥글고 검붉은 얼굴은 그가 감정에 優越한 것을 나타내었다.-중략-그러나 그의 旅行은 그의 生活의 한 轉換期라 할 수 있다. 그는 좁은 집과 넓은 길을 보았다. 그는 깨끗하게 차리고 밧부게 왔다갔다 하는 都會人을 보았다. 所謂 문화라 하는 것은 이렇저렇 맛보고 왔다. 그의 눈에는 다시 多情스러운 한머니가 보이지 안코 偉人의 風采를 가진 한아버지가 보이지 안었다.⁶²⁾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훨씬 크게 자란 포플러와 이전에 비해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와 화단 등 몇 군데가 달라진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문화’를 경험한 그에게 고향은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공간이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게으르고, 친구 영서(英瑞)의 부모는 아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에다 창호의 집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하여 숙모와 나이 어린 종제(從弟), 시집갔다 쫓겨 온 고모가 있고 옆집 마누라가 무시로 드나든다. 고향은 이처럼 모든 생활이 침체한 과거의 공간⁶³⁾이다. 그만큼 그들

61) 근대에서 떠난 고향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돈 키호테의 모험에서 첫 번째 행동은 집을 떠나는 것이며 그 다음엔 우연과 로시난테가 길을 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돈 후안은 나폴리까지 갔다 돌아오며 돈 키호테에게는 집은 있으나 그곳으로 돌아온다 함은 징벌이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돈 후안은 우리가 아는 한 집이 없으며 언제나 더 푸른 목초지를 찾아 정처없이 떠돈다.” I. Watt, 이시연·강유나 옮김, 『근대 개인주의 신화』, 문학동네, 2006, 182쪽.

62) 朱落陽, <마을집>, 『青春』11, 1917. 11. 54~55쪽.

에게 고향은 낙후된 공간일 뿐이다. 따라서 창호는 ‘이 쌍을 咄呪하고 써 내려 하오. 나의 父母의 쌍 나의 祖先의 쌍 이 쌍을 咄呪⁶⁴⁾ 한다는 편지를 남긴 채 다시 고향을 떠나고 만다. 결국 창호가 있을 곳은 고향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구절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머리를 직크로 빗삭 갈나 붓친 이웃집 紳士도 나를 본다, 銀실갓흔 鬚髯을 흔드는 것집 老人도 나를 본다, 째무든 手巾을 휘휘 돌너 감고 지계짐을 지고 가든 압집 박선달도 나를 본다, 우숨을 半쯤 썬우고 粉 바른 뒷집 林書房 맥내도 나를 본다, 목말을 타고 가는 아해들도 나를 본다- (중략) 逼迫! 逼迫!

도모지 견뎌 수가 업다. 몸 避할 곳이 전혀 업다 親舊를 대하여도 旅行을 하여도 말에 散步를 하여도 안자도 서도 조곰도 나를 덤혀 들 곳이 업다. ⁶⁵⁾(강조, 인용자)

고향에 돌아 온 지식인은 마을 모든 남녀노소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은 그의 자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무지 몸 피할 공간이 없다. 대도시에서의 유학 시절, 도시의 문명을 만끽하고 하숙방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문학을 사고했던 그들이지만 고향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고향은 애초부터 도시에서 그리워 할 대

63) 프로레타리아 소설을 분석하는 글에서 김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희준의 귀향은 익숙하고 낯익은 것들과의 날카로운 결별, 친근하고 정든 가족적 유대로 결합된 공동체로부터의 차가운 이탈을 초래하는 것이다. -중략- 김희준에게 귀향은 낯익고 정다운 것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말하자면 그는 낯익은 고향에서 떠나 낯선 타향으로 갔다가 다시 낯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며, 낯익은 사람들을 떠나 낯선 사람들 속으로 갔다가 다시 낯선 사람들에게로 돌아온 자이다.” 김철,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텔지어의 시공(時空)』,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166쪽. 김철의 이와 같은 지적은 창호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64) <마을집>, 위의 책, 62쪽.

65) 현상윤, <逼迫>, 『青春』8, 1917. 6. 87~90쪽.

상이지 돌아갈 장소가 아닌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후의 문학에서도 이어진다. 1920년대 이후의 문학에서도 지식인들은 대부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⁶⁶⁾ 태어나고 자란, 가족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들과는 이미 정서적으로 절연되어 있으며 근대의 분할된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고향은 그들이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까닭이다.

IV. 마무리

근대문학은 사적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자기’, ‘개성’, ‘내면’ 등이 강조되는 것이 근대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때, 사적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근대에 들어 사적 영역들이 분화되고 재배치되어야 근대문학 역시 탄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의 사적 공간은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과 부부, 가족, 어린이 등의 개념과 더불어 분할되고 배치된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근대 초기 조선의 경우, 사적 공간을 창출할 만한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근대지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선택할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주거공간의 변화가 사적 영역을 형성하고 근대적 문학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유학생들의 기숙사, 특히 하숙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숙사는 때때로 사적 공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규율과 규칙으로 통제되는 공

66)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문학의 대중화 운동이나 브나로드 운동 같은 문화적 계기들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고향은 이미 낯익은 고향이 아니라 개조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김철의 지적대로 ‘한국의 근대 리얼리즘 문학이 실은 모더니티의 변화된 시간관, 특히 직선적(linear) 진보 이념을 바탕으로 존재론적 구속을 통속적 혹은 정신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김철, 앞의 글, 167쪽)인지 모른다.

간인 만큼 사적 영역의 성격을 온전히 지니기는 어려웠다. 반면 주인집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하숙방은 유학생의 내면을 형성하고 문학을 사고하는 내밀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근대 초기의 문학적 글들에서 하숙방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숙방이라는 공간은 ‘고향’을 떠남으로써 가족과 분리되는 계기로 획득된다. 따라서 하숙방은 ‘고향’의 ‘집’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공간이다. 학교라는 근대적 제도, 유학이라는 형식을 선택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숙방이라는 공간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하숙방을 중심으로 하여 유학생의 생활이 형성되며 그들은 당시의 문화적 형식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이들을 내면화시켜 나간다. 하숙방은 또한 개인적인 취미에 따라 꾸며지면서 당시 유학생의 고독한 내면을 보여주고 문학적 고민을 드러내기도 한다. 당시의 문학에서 상투어처럼 등장하는 고리키와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은 그들 문학의 출발점과 고민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숙방은 때때로 지적 수준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내밀성이 교환되는 장소의 기능도 보여준다. 그 결과 하숙방은 근대의 문학을 읽고 쓰는 공간으로 재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고향’에서는 이와 같은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 ‘고향’은 과거의 공간일 뿐이며 공·사 영역이 뒤섞여 있고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리로 드나든다. 하숙방이라는 근대적 공간을 경험한 그들에게 과거의 고향과, 분할·재배치되지 않은 ‘집’의 공간은 어쩌면 후진성의 상징이었던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고향에 가지 못한다. 고향에서 그들은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숙방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문학을 포함한 모든 근대적 형식들은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한다. 하숙방이라는 사적 공간을 확보하고 근대의 일상을 경험하는 순간 고향 및 가족들과는 정서적으로도 절연되어버리는 까닭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미일신문』, 『독립신문』, 『青春』, 『唯心』, 『學之光』, 『太極學報』, 『大韓興學報』, 『大韓興學報』, 『半島時論』, 『이광수 전집』1(삼중당, 1962)

2. 참고논저

70년사편찬위원회, 『東大七十年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 한길사, 1986.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이건상,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 『일어일문학』3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6. 11. 183~194쪽.

김영민, 「근대적 유학제도의 확립과 해외 유학생의 문학·문화 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297~338쪽.

이재봉, 「근대적 ‘시간’관념과 문학의 존재방식-양건식의 『귀거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37, 한국문학회, 2004. 8. 103~127쪽.

이재봉, 「근대적 욕망의 추구하고 서사화 방식-1910년대 소설의 고학생 모티프와 ‘자본’의 논리」, 『語文研究』41, 어문연구학회, 2003. 4. 253~276쪽.

이재봉, 「한국 근대소설에서 인생과 생활의 발견」, 『한국민족문화』32, 2008. 10. 99~134쪽.

이진경 편저, 『모더니티의 지층들-현대사회론 강의』, 그린비, 2007.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현대문화론 강의』, 그린비, 2007.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5.

주중연, 『한국근대단편소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1.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 『숭실대학교 100년사1-평양숭실 편』, 숭실대학교, 1997.
- 『梨花百年史』, 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 吉川昭, 李成鉦 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경인문화사, 2006.
- 나리타 유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옮김, 『고향이라는 이야기-도시공간
의 역사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 스즈키 토미, 한일문학연구회 역, 『이야기된 자기』, 생각의 나무, 2004.
- I. Watt, 이시연·강유나 옮김, 『근대 개인주의 신화』, 문학동네, 2006.
- M. 칼리니스쿠, 이영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모더니티/아방가
르드/테카당스/키치/포스트 모더니즘』, 시각과 언어, 1993.
- 아론 구레비치, 이현주 역, 『개인주의의 등장』, 새물결, 2002.
-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책임편집, 김기림 역, 『사생활의 역사』5, 새
물결, 2006.
- 馬越 徹, 『韓國近代大學の成立と展開』, 名古屋大學出版會, 1995.

<Abstract>

Modern personal space & internal space in Korean literature

Lee, Jae-Bong

In explaining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personal spac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western literature, the personal space appeared while the living space was divided and relocated with the concepts of family, the relations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the child, which was formed by the development of the bourgeoisie in 19 century. In Choseon Dynasty of the early modern era, however, the situations were different. In Choseon Dynasty, the concepts of 'modern' and 'culture' and the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caused the change of living conditions, resulting the appearance of personal space in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main space was the dormitory, especially the boarding house. The dormitory functioned as the personal space, but it had some limitations in that it was the controlled space with regulations and rules as it was basically the common living space. In the other hand, the boarding room, which was obtained under certain conditions of contract, was related to the modern literature as the personal space retaining som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The rented room, which was differentiated from other space of the boarding house, was the independent space meaning the resident's personality. In the boarding room, the lonely student away from home

was introspected and the intimacy with the intimate was exchanged intellectually and emotionally. The students were reading Tolstoy, Dostoevsky, Turgenev, or Gorky etc. or writing diary, letter, or novel. And thus the boarding room was the main space where the spirit and literature of the students were formed. The students living in this space were under the situations that they could not go back to their hometown. The hometown, where it was impossible to obtain the independent space like the boarding room, was not familiar and acquainted space any more. It was the space of past and the place where they could not go back. Because the space in which they were born and their family was living was exposed under the eyes of everybody and it was changed into the space emotionally unfamiliar with them.

Key Words : Modern literature, personal space, dormitory, boarding room, students away from home, inner world, intimacy, hometown, space division